點 檢

92 시멘트 決算書

金 淳 三
〈韓國洋灰工業協會 企劃課長〉

1. 개 황

금년도 산업경기는 전반적으로 주요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건설 등 비제조업부문에 대한 경기진정대책 등으로 전년에 이어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성장세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UR 협상 타결 지연 등으로 통상마찰이 심화되었고 일본의 동남아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의한 이들 지역 및 중국, 멕시코, 동구제국 등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의 급속한 회복은 없었으나 국제수지는 달러화 및 엔화 강세로 인한 환율여건 개선과 수출다변화로 50억 달러의 무역수지적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도 인력난과 고임금, 자금의 초과수요로 인한 고금리와 이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오자 정부는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총수요관리를 통해 경기진정에 주력함으로써 1·4분기 7.4%, 2·4분기 6.0%의 GNP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3·4분기에는 성장률이 11년만에 최저인 3.1%로 급락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80년대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을 시발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국내의 건설경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과 더불어 유휴지에서의 건축공사가 크게 증가하였고 또한 민간에서의 건설투자가 활발함에 기인하여 사상유례가 없는 활황국면을 유지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건설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시멘트, 골재, 레미콘 등 건설자재산업도 급신장을 거듭하였으며 대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근간 건설경기의 급격한 상승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한 건설자재의 구득난 및 인력난을 유발하여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및 대외무역수지적자 등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속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 사례가 잇달았다.

이러한 부작용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0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11차에 걸쳐 건축허가를 규제하였고 건자재 수급상황 상설점검체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멘트 등 주요 건자재 수급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자재 수급불안에 대한 사전 감지기능을 강화하고 유통브로커의 개입과 중간상의 매점매석 및 대리점의 부당거래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또한 시멘트 유통실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멘트 수급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우리 업계에서는 국내 시멘트 총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금년에도 신·증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쌍용양회는 동해 1호 키른을 연산능력 2,508천톤으로 확대개조하여 8월부터 가동했고 현대시멘트는 영월에 1,980천톤의 키른을 신설하여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성신양회도 3호 키른을 624천톤 늘어난 1,815천톤으로 개조, 4월부터 가동함으로써 시멘트 공급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93년의 신·증설계획을 살펴보면 동양시멘트는 7호 키른을 신설하여 2월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한일시멘트는 연산 1,551천톤 규모의 6호 키른 신설공사를 올 11월말 완료하여 93년부터는 정상가동할 것이며 고려시멘트도 삼척에 1,551천톤 규모의 증설공사를 3월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에 진력하고 있어 국내 시멘트 수급원활화 및 수출물량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수 급

11차에 걸친 건축허가 규제조치와 부동산경기의 침체, 초토세 영향의 감소,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의 퇴조로 건축경기가 안정을 찾게 되어 시멘트 수요의 증가추세도 현저히 둔화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7월부터 일부 비주거용건물 신축과 주거용건물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건축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연면적의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어 10월까지의 누계가 74,004천m^2로 전년동기대비 22.1% 감소하여 시멘트수급 안정에 도움은 되었으나 상반기중 시멘트 소비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8.5% 증가한 23,900천톤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업계는 시설보수까지도 최대한 연기하면서 생산시설을 풀가동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수출입부문에 있어서는 수급이 안정을 찾아가고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수출을 연계한 할당관세제 실시로 수출을 촉진하여 점차 수출량이 신장되는 추세에 있으나 수출물량 부족으로 기존거래선에 대한 최소한의 수출이행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고 수출지역도 거의 일본에 편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남아시장을 일본에게 잠식당하는 결과를 가져와 향후 수출선 다변화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올 수출실적은 전년보다 6.4% 감소한 1,150천톤에 머물었으며 수입소비를 포함한 총내수는 전년대비 5.2% 증가한 46,500천톤을 기록하였다.

1) 생 산

금년의 크링카 생산은 38,900천톤으로 전년대비 11.0%, 시멘트 생산은 42,500천톤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하였다. 이 시멘트 생산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13.8%, 2·4분기 7.2%, 3·4분기 10.4%, 4·4분기 12.5%로 2·4분기를 제외하고는 10% 이상 높은 성장을 나타냈다.

이는 상반기에 집중된 시설보수와 증설키른의 생산저조 관계로 다소 차질이 있었으나 전년도 증설분이 하반기에 정상가동에 들어가 생산에 크게 기여한 것과 업계의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가동률 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체별 생산실적을 보면 한라시멘트가 3,953천톤으로 전년대비 76.9%나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이 아세아, 현대시멘트로 각각 26.2%, 23.0% 증가한 3,783천톤, 3,653천톤에 이르렀다. 한라시멘트는 전년도에 증설한 2,3호 키른이 정상 가동하였고 아세아, 현대시멘트도 각각 4호, 영월 1호 키른의 본격가동으로 생산이 증가하였다.

2) 내 수

시멘트 수요는 전적으로 건설경기에 의하여 파생되는데 지난 2~3년 동안 주택건설의 지속적 추진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의한 건설경기의 과열로 시멘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1차에 걸친 정부의 건축허가규제로 건설경기가 진정됨에 따라 시멘트수요도 정상상태로 돌아서 올해는 전년대비 5.2% 증가한 46,500천톤 수준에 머물었다.

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32.2%, 2·4분기 9.4%, 3·4분기 -6.6%, 4·4분기 -5.2%로 지난해 하반기 후반의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한 이월수요가 발생한 1·4분기를 제외하고는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어 하반기에는 5.9% 감소한 22,600천톤에 그쳐 건설경기의 안정화추세를 반증해주고 있다.

(1) 계절적 출하실적

시멘트는 제품의 특성상 수요의 계절성이 뚜렸하였으나 최근 이같은 추세는 점차 퇴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건설경기의 과열로 인해 필요한 시멘트를 적기에 공급 받을 수 없게 되자 비수기에 물량확보를 위한 가수요 발생과 이상난동 및 건설공법 발달로 동절기의 공사진행이 주요인인 것 같다.

시멘트의 월별 소비추이를 보면 총국내출하량에 있어서 건설업 비수기인 1~2월에만 월평균치를 밑도는 실적을 보이고 3~12월은 이를 상회하고 있어 비·성수기의 구분은 되고 있으나 과거 10년간의 계절지수를 놓고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는 차츰 완화

되고 있으며 비수기가 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중 최성수기인 6,10월은 각각 4,574천톤, 4,336천톤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였고 특히 6월의 내수 4,574천톤은 월간 사상최대 기록이다. 이는 일평균 약 152천톤이 출하된 셈이다. 반기별 출하 구성비는 상반기 23,900천톤, 하반기 22,600천톤으로 연간 내수물량의 각각 51.4%와 48.6%를 점하고 있어 하반기에 다소 수요편중 현상을 보이던 예년과는 달리 상반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건축경기추세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분기별로는 2·4분기중 13,207천톤을 기록하여 피크를 보이고 있다.

(2) 수요부문별 및 품종별 출하실적

내수출하를 수요부문별로 보면 민수 91.6%, 관수 8.4%로 전년의 민수 92.8%, 관수 7.2%였음을 고려할 때 민수는 매년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요를 주도하는 반면 관수부문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금년에는 전반적인 건설경기둔화와 토목부문의 상대적 증가로 관수물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 전년대비 민수는 4.1% 증가했고 관수는 19.4% 증가하였다.

품종별 출하실적을 보면 벌크시멘트의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어 수요패턴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금년의 벌크출하는 28,671천톤으로 국내산 총출하의 70.1%를 차지, 전년의 67.1%보다 3.0% 포인트 높아졌으며 절대량으로는 15.1% 증가하였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수기인 1,2월과 건축경기가 크게 위축된 8,9월이 각각 67.7%, 66.4%, 68.2%, 68.9%로 평균치보다 낮았다.

이러한 벌크화율의 증가추세는 시멘트 이용면에서의 대량소비, 기계화 및 레미콘 사용의 일반화와 연계될 수 있는데 국내건설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레미콘에 대한 수요도 매년 증가하여 왔다. 시멘트 물량의 레미콘 전환율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건설공사가 건설인력의 부족과 현장타설공사가 레미콘으로 전환율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기인하며 균질의 콘크리트를 대량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등 여러면에서 편리하고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벌크화율의 향상은 수송효율의 증대, 보관관리의 용이, 유통의 단순화, 하역비용 및 포장비용의 절감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 이점이 많은 바 벌크화율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재 고

91년말 548천톤의 시멘트 재고를 이월받은 92년은 비축기인 1,2월에도 이상난동과 이월수요 증가로 인하여 재고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성수기를 맞이해 연중 수급에 우려를 나타냈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축기인 2월의 937천톤을 정점으로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재고는 수요감소로 9월 1,082천톤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1월에는 다시 666천톤으로 크게 줄었다. 연말에는 998천톤 정도가 예상되는데 금년초와 같이 수요가 증가한다면 93년 성수기를 대비한 적정수준의 이월재고로는 부족한 양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수기인 내년 1,2월중에 생산을 극대화하고 소비지 유통기지의 비축을 늘려야 할 입장이다.

3. 수 출 입

시멘트산업은 그 특성상 에너지 다소비형산업이며 중량화물제품으로써 수출에 의하여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수출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약화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수출은 수입과 마찬가지로 국내수급의 불균형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있을 뿐 장기적인 시멘트산업의 전략이 될 수는 없다.

최근 내수의 급격한 확대와 함께 국내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되자 80년대 후반까지 300만톤 이상을 유지해오던 수출물량이 90년부터 200만톤 이하로 떨어지면서 일본의 거래선 370개사 중에 290개사가 이탈하는 현상을 빚었다. 동시에 90년에는 210만톤, 91년에는 710만톤 규모의 수입이 78년 이래 재개되었다.

금년에도 전년 이월수요 및 동절기 이상난동으로 국내수요 급증에 따른 재고부족과 해외시장 수요감소로 수출시장이 침체를 계속했고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수출을 연계한 수입할당관세정책을 펴서 수출은 1,790천톤에 그친 반면에 수입은 6,150천톤 정도가 예상된다. 금년 수출은 크링카와 시멘트를 합하여 출하기준 1,790천톤으로 전년의 1,671

천톤에 비하여 물량으로 119천톤, 비율로는 7.1%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지역별 수출을 보면 일본이 전체수출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 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및 가격하락추세를 보였고 수출물량부족(수급불안, 재고부족)으로 일본 등의 수출경쟁국에 동남아시장이 계속 잠식되고 있고 태국 등 아세안국가 및 대만의 증설로 수출시장 확보경쟁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현지법인의 판매활동을 적극지원하여 신규거래처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시멘트 수입은 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6,150천톤(크링카수입 550천톤 포함)을 수입했으나 전년 7,263천톤에 비해서는 1,113천톤이 줄어든 실적이다. 그러나 1·4분기에서처럼 전년비 178.0% 증가한 1,835천톤에 달한 경우도 있다.

1~5월간 수입시멘트는 전체 수요의 17.2%를 차지하여 91년 9.9%였던데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1월 561천톤, 2월 519천톤, 3월 569천톤으로 비수기인데도 다량이 소비된 것은 시멘트 확보를 우려한 일부 레미콘업체들이 비축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이며 4월 715천톤, 5월 961천톤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매월 유발수요중 국내공급이 부족한 부분을 커버한 것으로 풀이되고 하반기에는 1,468천톤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국내공급에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수입지역은 전년과 같이 대부분 중국으로 4,311천톤인 70.1%에 달하고 그 외 일본이 1,538천톤에 25.0%를 차지했다.

결국 시멘트 수출추천제와 수출연계 수입할당관세제는 국내수급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수출면에서는 동남아시장, 호주, 미국 및 남태평양 등의 수출시장을 거의 상실케하는 한편 국내시멘트 수출의 주시장인 일본시장마저도 수출물량의 대폭적인 감소로 한국산 시멘트 수입출하기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시멘트업계는 건설경기침체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물량면에서 상당한 신장세를 가져와 그동안 수입물량으로 충당하던 공급부족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증설공사를 꾸준히 하고 있어 향후 수급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시멘트수요 신장세둔화에 대비하여 수출기반의 확충이 요구되는 바 기존의 수출선 이외에도 새로운 수출선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

92년 시멘트 수급총괄

(單位 : 천톤, %)

				91	92	전년비
크링카	생 산			34,999	38,900	111.1
	수 출			443	640	144.5
시멘트	생 산			38,335	42,500	110.9
	수요	내수	민수	33,860	37,015	109.3
			관수	3,255	3,885	119.4
			계	37,115	40,900	110.2
		수 출		1,228	1,150	93.6
		계		38,343	42,050	109.7
재 고	크 링 카			413	705	170.7
	시 멘 트			548	998	182.1
	계			961	1,703	177.2
수 입	크 링 카			103	550	534.0
	시 멘 트			7,160	5,600	78.2
	계			7,263	6,150	84.7
총 내 수(수 입 포 함)				44,186	46,500	105.2

註 : 1) 92년 12월은 추정치.
2) 수입시멘트중 92년 내수기여 5,600천톤으로 추정.

방의 물결과 함께 급속히 개발될 여지가 있는 북방 즉 중국, 북한, 구소련 등이 장래의 수출시장으로서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수출선을 개척하기 위하여는 긴 기간이 요구되고 또한 많은 정보와 노력 등이 필요하므로 전업계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공동대응이 필요하겠다.

또한 시멘트 수요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증설을 통한 생산시설을 대폭 증대시키고 있으나 이와 함께 소비지 보관기능확대와 수송능률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에 적기공급을 위하여 생산시설과 병행하여야 할 필수시설인 유통기지능력은 현재 817천톤으로 약 6일분 수요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1,000천톤 이상을 신규로 빠른 시일내에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와 생산능력 팽창에 따라 수송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수송력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벌크화추세에 따른 벌크화차의 부족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트럭에 의한 육송은 비용과 도로의 부족, 교통체증문제로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시멘트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철도수송의 확대는 물론 항만에 유통기지건설을 확대, 선박수송을 늘려 나아가야 할 것이다.